“전남광주 121명, 미등록·미인가 시설 대안교육”

교육단체 “초·중 의무교육 고의 회피”

영어 몰입 교육·공교육 불신 등 영향

교육청, 보호자 과태료부과 사례 전무

전남광주에서 121명의 학생이 미등록·미인가 시설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광주 83명, 전남 38명 등 총 121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는 총 655명(광주 367명, 전남 29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4%인 121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이다. 가정내 학습은 56명(광주 28명, 전남 28명), 학교 부적응은 291명(광주 144명, 전남 147명), 기타 76명(광주 41명, 전남 35명)이다.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교육기본법 제8조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호자는 자녀를 국가가 인정한 초·중학교에 진학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시민모임은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며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미인가 국제학교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교육비 과다 징수, 학생 안전 문제 발생 등 각종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온 결과물”이라며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 고발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을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장수사진 예쁘게 찍어드려요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행사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려 어르신들이 대한미용사회 북구지회원들로부터 뷰티 체험을 하고 있다. 북구와 대한미용사회 북구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참가해 머리 손질과 화장, 한복 입고 장수사진 찍기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공〉

“존엄한 장례 모두의 권리…공공 책임 필요”

2026 장애인권정책토론회

광주 최근 5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

2021년 44명→지난해 128명 급증

정희경 교수, 지자체 종합 지원 촉구

전남광주 지역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6 장애인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를 위한 정책제언’을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0-2022년 3년 간 1천371명에 달했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2021년 44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6월에는 연고자가 없어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날 뻔했던 중증장애인을 생전 함께했던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들이 배웅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현행 복지장례 지원 조례에 대해 “친구·동료·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들과 실제로 가까웠던 사람을 찾아 알리는 절차 등이 부족하고 장례 후 이어지는 책임과 남은 재산·장례비 분리·관리 기준 또한 모호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장례 지원 조례에 시장 책무에 의사소통·장례 참여 지원을 명시하는 등 보완과 함께 ▲생전 장례의사 ▲실제 관계인 확인·통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유골·기억 관리 ▲1사례 1담당자 등 새로운 내용 5가지의 조항 채택을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영준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세상을 떠났을때 슬픔을 마주하고 추모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혔다”며 “전남광주가 장애인 및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한민국 복지 행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형우 기자

서구, 내달 15일 광주서창억새축제 개최

나흘간 극락교-서창교 나눔누리숲 일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가을 억새와 노을을 즐기며 걷고 쉴 수 있는 축제를 올해도 개최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4일간 영산강 극락교-서창교 나눔누리숲 일원에서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서창억새축제는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약 3.5㎞에 걸쳐 형성된 영산강변 억새 군락을 활용한 자연경관 축제다.

올해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주제로 기존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을 천천히 걷고 머물며 쉬는 ‘산책형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의 중심은 영산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억새길이다. 주무대 입구부터 소무대까지 약 400m 구간에는 음악을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선율이 흐르는 억새길’이 조성된다.

걷는 동안 억새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와 주변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억새 사운드 스케이프’와 축제장 곳곳의 소리를 찾아 기록하는 ‘소리 산책지도’도 운영된다.

마라톤은 17일 해 질 무렵 영산강변에서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억새밭에 누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한 시간 동안 쉬어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연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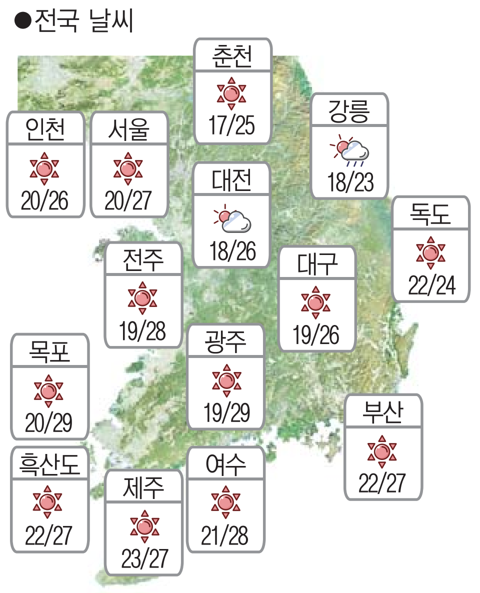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6:11 해짐 18:49 달뜸 03:44 달짐 17:44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9/29	장성	맑음	18/29
목포	맑음	20/29	보성	맑음	17/28
여수	맑음	21/28	함평	맑음	18/29
나주	맑음	18/29	순천	맑음	19/29
완도	맑음	20/30	영광	맑음	18/29
구례	맑음	16/28	진도	맑음	19/28
강진	맑음	18/30	흑산도	맑음	22/27
해남	맑음	18/30	고흥	맑음	19/29
광양	맑음	19/28	담양	맑음	18/2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5
	먼바다(북)	1.5-3.5	1.5-3.5
	먼바다(남)	1.5-3.0	1.5-3.0
남해서부	앞바다	0.5-2.0	0.5-2.0
	먼바다(동)	1.5-3.5	1.5-4.0
	먼바다(서)	1.5-2.5	1.5-3.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0:39	06:09	여수	07:47	01:47	녹동	08:25	02:56
	12:44	18:10		20:16	13:45		21:00	14:46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감기 조심해요
세 차 80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야외건조 좋아요
운 동 50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10일(목)	11일(금)	12일(토)
(18/28) 맑음	(17/29) 맑음	(18/30) 맑음
13일(일)	14일(월)	15일(화)
(20/30) 구름많음	(21/29) 구름많음	(19/28) 구름조금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